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진 관 훈*

〈차 례〉

- I. 머리말
- II. 해방전후의 제주도 경제
 - 1.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특성
 - 2. 해방 직후의 제주도 경제
- III. 4·3과 제주도 경제
 - 1. 4·3의 경제적 원인
 - 2. 4·3 전개와 제주도 경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해방 전후의 경제상황과 '4·3'¹⁾과의 관련성을 고찰해 보려는 것이다. 특히 '4·3'이 경제적 배경과 원인, '4·3' 전개과정에 나타난 경제변동 상황 등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4·3'이 경제적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주로,

* 탐라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 제주한라대학 강사.

1) '4·3'은 1948년 4월 제주도 전역에 발생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명칭에 대한 공식적 합의는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건', '사태', '폭동', '반란', '항쟁' 등 부분적이고 비중립적인 용어를 각기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4·3연구소〉, 〈4·3 진상조사 위원회〉, 〈4·3 유족회〉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중립적인 용어로 간주되는 '4·3'을 사용한다.

민·관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사건들에 주목하였다.

'4·3'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 중에 '끝나지 않은 역사, 4·3', '4·3은 말한다' 라는 것이 있다. 이는 '4·3'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미 정리되어 버린 '마침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제주도민들의 삶과 의식에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역사적 유기체'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 한가지 더 보충한다면 '4·3'은 지금까지 작용하는 '총체적'인 역사 현실이라는 것이다. 즉, 지역공동체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경험 혹은 '4·3'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생애사적인 사건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삶에 작용하였고 지금까지도 제주도민들의 삶과 의식을 결정하는 基底로 작용하는 '살아 숨쉬는 역사'이다.

'4·3'은 현재 '진상' 파악과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정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학문적 수준의 연구'도 일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다.²⁾

대부분의 사회현상이나 역사적 사건들은 그 원인과 전개과정이 단순하지가 않다. 대개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내재적 측면이 많다. 이들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제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4·3'의 경제적 측면을 정리해 보려는 것이다.

이 시기 제주도 경제에 대한 연구는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조선식산은행조사부 발행(1946-1948년), 『식산조사월보』, 『제주신보』, 신상준(2000), 『제주 4·3 사건(상권)』, 그리고 제주도의회(2000), 『제주 4·3자료집-미군정 보고서』³⁾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은 II장에서 '4·3'을 전후로 한 제주도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4·3'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물수집, 물자보급, 밀무역 등과 '4·3' 전개과정에 나타난 제주도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2) 여기에서 말하는 '학문적 수준'이란 흔히 말하는 '과학적 방법론'을 기본 조건으로 삼는 연구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4·3'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개인생애사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 외에 법제도적 측면, 국제정치학적인 측면, 집단심리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3) 이 글 역시 제주도의회(2000.12), 『제주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였다. 또한 필자가 제주 4·3연구소 주최, <미군정 보고서 발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해방 직후 제주도 경제" 논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II. 해방전후의 제주도 경제

1. 일제하 제주도 경제의 특성

일제하 제주도 경제는 식민지 본국인 일본경제에의 종속 심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다. 이러한 식민지 종속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제주도와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로 인한 교역 증가, 제주도 노동력의 일본 하층 노동시장으로의 편입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제주도 경제에 있어 '한일합방'은 조선왕조에서 일본제국주의로 경제의 중심축, 다시 말하면 주변부에 권력 중심부가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왕조에 종속되어 있던 제주도 경제가 일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간 것이다. 이러한 종속의 성격은 한반도 벼농사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왕조에의 종속은 봉건적 종속으로 주로 정치권력에 대한 종속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자급 자족적이었으며 진상이나 부분적 사거래 등의 소극적 교역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의 종속은 정치권력에의 종속과 더불어 경제적 측면도 강하였다. 이는 식민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것으로 식민지 본토의 시장(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모두)에 광범위하게 종속된 것이다. 즉 상품, 노동력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 지향적 경제활동(예를 들면 1930년대 환금작물 재배 증가)이 빈번해 진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본토시장에의 종속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의 편입 등의 전반적인 종속과 통합이었다.

이러한 종속은 개항과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침탈로 조선의 국가적 재분배 체계가 소멸하고 새로이 등장한 일본의 식민지적 분업체계에 포섭되기 시작하면서 비롯되었다. 식민지 초기 제주도 경제는 단발령과 역제 폐지로 인한 망건생산이 침체되고 토지조사사업과 화전금지령으로 인해 농촌 생산기반이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으로 제주도 '부'의 중심지역인 중산간 농촌의 경제적 기회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부 상황에서 제주도 경제는 산업의 '진흥'보다는 식민지 본토 노동시장에의 통합에 의해 경제성을 증가시키는 경로 의존적 전개과정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발전 기반이

미약했던 제주도 경제는 해산물 가치의 상승으로 형성된 해녀노동시장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를 낙후성 탈출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또한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과 일본노동시장의 형성으로 노동 기회가 부족하였던 제주도 농촌 노동력이 일본 하층 노동시장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식민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였다.

1922년 일본과의 직항로 개설 이후 가속화된 제주도의 교통 발달은 '交易의 增加'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교통의 발달은 물자와 사람이 이동을 증가시킨다. 제주도 역시 일본으로의 노동력 이동과 일본과의 상품 거래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渡日 제주도민이 송금이 증가하여 제주도 농촌의 현금 보유와 상품 구매력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본상품 특히, 공산품에 대한 소비가 생성, 확대되어 생필품을 포함한 각종 공산품 유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제주도 농촌에서도 환금작물 재배 확산, 농업생산력 증대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구매력 신장되어 소비 규모가 확대되었다.

당시 제주도 경제의 교역증가는 제주도 전체 경제규모의 증가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경제체제로의 종속 심화, 식민지 본토 시장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와 일본의 무역은 1923년 이출입 총액이 93,144원에서 1935년에는 3,567,569원으로 38.3배 증가하였다.

<표 1> 일본과의 교역 비교표 (1923~1935)

(단위 : 원)

연도	이출액	이입액	총계	이출입비교
1923	63,973	29,271	93,144	+34,702
1924	218,061	138,966	357,027	+79,095
1925	529,600	274,291	803,891	+255,309
1926	687,796	476,107	1,163,903	+211,689
1927	364,504	357,668	722,172	+6,836
1928	553,670	427,770	981,397	+125,900
1929	717,863	585,425	1,303,298	+132,438
1930	761,228	1,902,194	2,663,422	-1,139,966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연 도	이 출 액	이 입 액	총 계	이출입 비교
1931	1,111,237	1,523,223	2,634,460	-411,986
1932	1,147,121	1,561,782	2,708,903	-414,660
1933	1,497,487	1,850,319	3,347,806	-352,832
1935	1,592,824	1,974,745	3,567,569	-381,921

자료 : 釜山商業會議所(1930), 「濟州島と その 經濟」, p.46 : 濟州島廳(1937), 「제주도세요람」, p.141.

주 : 1929년까지는 釜山商業會議所(1930)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는 濟州島廳(1937)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통계자료의 불연속 문제가 나타났다. 즉 1929년에 비하여 1930년 이입액이 큰 폭이 증가한다. 이에 대한 납득 가능한 근거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역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은 큰 무리 없이 인정된다.

〈표 1〉에서 1923년 이출입 총계와 1935년을 비교하면 무려 38.3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의 교역량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특히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규모가 1백만원대에서 200백만으로 곧 이어 300백만원대로 증가했다. 이출입 비교에 있어서도 1930년부터 입초현상이 심화된다. 일본과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1929년에는 제주도의 전체 통화 중 70%가 일본화였고⁴⁾ 1935년에는 제주도 전체 통화의 90%가 일본화였다. 이처럼 제주도 경제는 일본과의 거래가 외부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제주도 경제가 '산업발전'보다는 식민지 본토의 하층노동시장에 포섭되는 방식으로 식민지 경제체제에 대응해 갔던 것은, 1920년대 산미증산 정책과 1930년대 공업화 정책 등 각종 식민지 경제정책의 주변지역에 있었던 제주도의 유일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선택의 결과, 제주도 산업발전에 있어 '선진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상대적 낙후성이 究明되고, 그 상대적 낙후성이 점차 개선되어 가는 것이 이 전략적 선택에 대한 보상이었고 아울러 일본에의 종속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4) 상계서, p.41.

2. 해방 직후의 제주도 경제

제주도 경제에 있어 '해방'은 최대 교역상대였던 일본시장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해방 직후 제주도 경제는 이러한 '단절'을 대체할 만한 아무런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과도기적이고 자유시장적인 미군정 정책에 적응하는데 있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조선은행 조사부가 펴낸 1948년 『조선경제연보』 제주도 편에 기술된 해방 직후 제주도 경제 개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46년 말 제주도 총인구는 271,379명으로 이 중 남자가 127,701명이고 여자는 143,678명이다. 리스트의 경제발전단계로 제2단계인 農牧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관계도 원시적 자급자족의 범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는 총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일본에 출가자에 의한 환송금 등이 다액에 달하여 도민의 경제력은 強, 強忍하다. 해방 이후 일본상품 및 일본군이 잔존한 군수품으로 인한 줄부가 多數이나 이 巨額은 대부분이 부산, 서울, 인천, 목포 등지로 이주하였다.

.....해외로부터 귀환한 본도 출신 동포들은 기왕부터 각자 고향에 경제적 준비와 저축을 하고 있었고 입국 당시 어느 정도의 현금과 물자를 반입하여 왔음으로 현재 서울 등지에서 보는 비참한 생활풍경은 발견하기 어렵다.다소의 이익만 있으면 勞苦를 불문코 남녀노소가 목포 등 육지부 연안에 왕래하여 소위 '뚝다리' 장사를 하고 다니는 광경과 부녀자가 수천리 태평양파도를 횡단하여 일본 등 외국과 무역⁵⁾을 하고 있는 사실은 도민의 경제력과 활동적 기상, 해양적인 旺盛을 표시한다."⁶⁾

해방 직후 제주도 사회는 혼란과 과도기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민지기를 통하여 내재되어 온 기본적인 생활 수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 생산활동에 대한 의욕과 능력 등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⁷⁾

이 당시 제주도 경제상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조선식산은행 조

5) 여기에서의 무역은 소형어선을 이용한 일본과의 사무역 즉 밀무역을 의미한다.

6)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p. 地-3.

7) 해방직후 제주도 사회는 잔존 군수품, 귀향하는 동포들의 반입물자, 공출 안된 식량 등으로 짧은 기간이나마 풍요를 경험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예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간혹 나타났다.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1999),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2』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사부, 『식산조사 월보』를 들 수 있다. <표 2>는 이에 나와 있는 해방 이후 4·3 직전까지의 제주도 경제 개황을 표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당시 제주도 경제는 농업생산의 감소, 각종 물자부족과 그로 인한 물가폭등과 인플레이, 상업활동이 미약한 대신 각종 암거래가 성행하였고, 각종 상품을 일본에서 밀수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제주도 경제일지 (1946.8 - 1947.10)

일시	산업분	경제개황
1946년 8월 1일 현재	농업	맥작은 기후 온화와 雨量過多가 염려되었으나, 발육상태는 양호하며 평년작 예상
	수산업	가격폭등으로 인한 부분적 활황. 생산고는 근소. 잠수기업자들이 성산포, 서귀포에서 사업 시작
	상업	식량난에 의하여 도외로 고구마 반출이 심하였으나, 당국의 식량사정 어려움으로 법령으로 허가제를 취하여 억제 중. 일반상품거래는 점차 긴박, 물가는 상승일로.
	금융	일본잡화를 매점 하러 오는 상인들의 송금에 의하여 예금 증가. 일본 은행권 예입은 총 7,345천원.
1946년 11월 15일 현재	농업	맥작 4할 감수 예상
	공업	절간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신한공사 제주무수주정공장 공장설비 수선 중
	수산업	어획고에 들어가고 있으나 해녀의 疋布 등 채취작업 이외의 생산 없음
	상업	5월 인천에서 소맥분 1,469입, 대두 1,492입, 조 251입, 대맥 953입, 압맥 1,482입, 소금 10,880파 반입되어 배급 중. 서울로 절간고구마 6,000톤 반출계획으로 적재 중
금융	통화팽창 중, 예금 증가, 대출 감소	

일시	산부 업분	경 제 개 황
1947년 4월 15 일 현재	농 업	稻作은 순조한 기후로 발육이 양호하여 평년작이 기대됨. 조 역시 기 후 혜택으로 평년작 예상. 고구마는 作柄 양호
	상 업	육지와외의 교통두절로 인하여 상품교류는 별무. 당국의 엄중한 경제망을 타서 일본으로부터 絹, 면포, 기타 잡화 밀수입 성행. 이외 상업은 저조
	금 용	일본으로부터 밀수품 및 해산물을 매점하려고 육지부에서의 송금이 있는 이외에는 한산
1947년 7월 15 일 현재	농 업	추곡수확예상고 조 99,684석(전년 대비 10,931석 증가), 쌀 14,182석(전년 대비 3,021석 증가), 대두 10,392석(전년대비 2,503석 증가), 보리는 발육상태 양호
	수산업	수확고 근소
	상 업	일본, 중국, 대만으로부터 직물, 생필품, 사탕, 공업원료, 공업약품 등을 적재한 밀수품선이 입항하여 모리배, 브로카 들의 暗躍 현저
1947년 7월 15 일 현재	금 용	밀수입품을 매입하고자 육지부로의 상품왕래가 심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환지불액은 559건 61,592원에 달하고 기타 유자금의 증가로 예금 증가액 현저
	농 업	보리는 6월 중 폭풍우로 수확 피해가 심함, 고구마 식재는 약 20일 늦어졌고 경지면적 다소 증가, 예상생산량 80천석(평년작의 53%), 수집 목표 17천석
	공 업	주정공장 운영자금 1억 수천만원, 그 중 원료수집 목표 200 만 관
1947년 12월 20 일 현재	상 업	일본으로부터 밀수입 증가, 지방물산 거래 무
	금 용	도내 금융기관 예금 대출 잔고(단위 : 천원) 예금 100,807(3월 말) 119,238(4월 말) 97,914(5월말) 116,969(6월 말) 대출 6,748 9,691 12,561 15,574
1947년 12월 20 일 현재	농 업	고구마 작황 양호
	수산업	저인망 수산업자 작업 개시하였으나 수확은 별무
1947년 12월 20 일 현재	상 업	일본으로부터 밀수입 물자 점차 회소, 지방 상거래도 한산

자료 : 조선식산은행조사부, <식산조사 월보> 권1권 제2호, 제3호, 권2권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준, 전개서, pp. 447-449에서 재인용하여 표로 작성)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1) 농업생산 감소

제주도 총면적 187,000정보 중 경지면적은 밭 93,089정보, 논 892정보이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2.02정보로 육지부 1.44정보에 비하여 영세하지 않다. 水稻 平均反當 생산량은 1.029석 (육지부 1.315석에 비하여 생산력이 떨어진다). 맥류 반당평균 생산고는 0.695석(육지부 0.864석)이다. 제주도 농업은 전통적으로 토지가 척박하며 비료사용이 적고 조방적 성격이 많았다. 농민 계층 구성을 보면, 자작농이 71%, 자작 겸 소작농이 20% 소작농이 9%로 자작농 비율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는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 수산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도의 주요 식량생산을 보면 보리, 조, 고구마가 가장 많고 쌀은 3% 수준에 불과하다.

〈표 3〉 1941-1946년간 제주도의 주요 식량생산 현황 (단위 : 석)

품 종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1946년	평균생산량	비율(%)
米	20,102	11,236	19,310	11,151	11,152	14,182	14,522	3.00
大麥	222,509	83,075	124,030	169,642	135,578	61,374	132,701	27.42
小麥	3,475	3,637	3,675	6,940	6,183	2,340	4,375	0.90
裸麥	54,740	66,834	77,091	91,551	45,719	20,071	59,334	12.26
조	98,498	93,994	169,346	160,845	88,753	99,684	118,520	24.28
옥수수	43	32	65	93	61	17	51	
蕎麥	16,972	5,646	12,001	25,103	7,954	11,620	13,216	2.73
大豆	14,388	6,007	11,380	19,893	7,889	10,392	11,658	2.40
小豆	1,176	631	1,521	2,263	630	1,255	1,246	0.26
甘藷	108,339	72,321	192,868	167,608	167,114	113,673	128,487	26.55
합계	540,242	343,413	611,287	604,089	471,033	334,608	484,110	100.00

자료: 조선은행조사부편(1948), 전계서, 地-4면.

〈표 3〉을 기준으로 연도별 식량 생산량을 보면, 1945년과 1946년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방 이후 농업생산 기반이 불안정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생산량 감소는 '4·3' 이후 더욱 심화되어 1950년대 까지 이어졌다. 이 같은 식량생산량 감소로 인해 양곡 부족과 양곡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양곡 부족 현상은 해방 이후 급격히 증가한 유입인구로 소비가 폭증하였고 이에 반해 식량생산 기반은 불안정하여 생산이 감소하는 공급부족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7년 10월 기준 제주도내 식량 여유능가는 10%, 자급자족 농가 50%, 부족 농가 40%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해 타도로부터 반입되어온 식량은 1946년 미곡 24,901석, 소맥 14,982석, 소맥분 5,354석 대맥 4,648석, 옥수수 159석, 전분 23석 총 50,067석이다. 이외에 붓다리 장사를 통한 반입도 있었다.

식량작물 이외의 주요 농산물로는 육지면이 연평균 14,000근, 대마 5,000근, 제충국 97,000근, 하밀감 3,000관, 밀감 7,000관, 진피감 15,000관,莞草 2,200근 등이 있었다.

2) 수산업 침체

1946년 수산업 총 호수는 12,581호이며 이는 제주도 전 호수의 2할이다. 1945년 어획고는 3백만kg 였으나 계속 감소하여 1946년도는 1944년 대비 약 1백만kg 감소한 2백만kg, 1947년 7월까지의 1백만kg에 불과하였다.

어선은 1945년에는 1,948척이었으나 1946년 말 현재 1,532척으로 감소하였고, 남아있던 어선들도 대부분 소형, 재래식이었으며 대형, 발동어선은 전무한 상태였다.

해방 전 제주도 수산업은 전적으로 일본에 종속되어 있었다. 해방과 함께 일본과의 단절로 연안 어업을 주로 하는 대다수의 영세어민들 자금난이 심화되어 적극적인 수산 생산활동에 나서지 못하였다. 더욱이 '4·3' 이후에는 출어 금지령으로 바다에 나가지조차 못하였다.

3) 공업생산 기반 취약

제주도는 해방 이전부터 기계 제조업, 건설업, 중공업 등의 생산기반이 취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약했다. 제주도의 공업은 가내공업, 수공업 위주로, 수공업은 직물, 죽세공, 조선모자 등이 제조에 불과하였고 고구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하는 전분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 식료품 제조 공장이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대부분 공장들은 원료공급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표 4> 공장 종류별 생산상태

종 류	공장수	단위	1947년 10월까지의 생산량		해방 전 평균생산량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酒 精	1	石	1,400	42,140천円	5,000	15,500천円
沃 度	4	吨	730	73	4,000	400
鹽化加里	4	噸	95	4,275	300	13,500
貝鉤(精製品)	1	마-스	15,000	1,950	40,000	5,200
貝鉤(粗品)	30	貫	-	-	10,000	2,000
燒 酒	4	石	-	-	2,000	20,000
甘藷澱粉	5	貫	30,000	8,400	300,000	84,000
罐詰(魚具類)	9	箱	400	1,600	50,000	50,000
罐詰(牛豚肉)	1	箱	83	208	20,000	50,000
罐詰(그린피스)	1	箱	-	-	2,000	2,000
罐詰(蜜柑)	1	箱	250	750	-	-
광공업(마차)	4	臺	250	200	500	400
광공업(농기구)	9	個	10,000	500	20,000	1,000
製 氷	1	噸	-	-	1,500	200
纖維(호무스빵)	1	碼	80	240	300	900
纖維(細羊毛絲)	1	封度	200	320	500	800
土 瓦	6	枚	100,000	1,000	200,000	2,000
白 灰	2	包	2,000	800	2,000	800
인쇄물	3	封度	40,000	4,000	50,000	5,000
油 脂	1	石	-	-	40	2,000
鹿角采(뿔)	3	噸	-	-	200	4,000
釀醬(醬油)	1	石	150	150	500	500
釀醬(土醬)	1	貫	1,500	75	5,000	250
製 材	10	才	500,000	5,000	200,000	1,000
精 米	185	石	70,000	1,400	20,000	400
총 계	289		-	73,081	-	261,850

자료: 조선은행 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地-7면.

< 표 4 >에서 보면 전 업종에 걸쳐서 해방 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다음은 전국 사업장수의 변동 상황을 살펴보자. < 표 5 >에서 보면, 제주도의 사업장수의 변동비율은 전국 평균 43.7%에 비하여 55.6%로 다소 높다. 제주도 노무자수의 감소비율도 전국 평균 59.4%에 비해 67.1%로 약간 높다. 이처럼 제주도의 공업은 거이 바닥 수준이었던 전국수준 보다도 침체되어 있었다.

< 표 5 > 지역별 사업장수 및 소속 노무자수 대조표 (1944년 6월 및 1946년 11월)

지역별	사업장수 1/			노무자수 (남녀 총괄) 2/		
	1944. 6	1946.11 /3	1944-46년도 의 증감비율	1944. 6	1946.11 /4	1944-46년도 의 감소비율
한국 총계	9,323	5,249	43.7	300,520	122,159	59.4
서울시	2,337	1,123	51.9	66,898	35,763	46.5
인천 5/	442	143	67.4	31,345	7,858	74.9
개 성	109	92	15.6	2,570	1,885	26.7
청 주	79	52	34.2	1,976	1,219	39.3
대 전	153	38	65.2	4,809	2,106	56.2
군 산	105	129	22.9	3,854	2,628	31.3
전 주	81	59	27.2	2,162	1,888	12.7
목 포	101	76	24.8	3,901	1,393	54.9
광 주	184	116	37.0	6,586	3,925	40.4
대 구	446	293	34.3	12,694	7,071	44.3
부 산	749	375	49.9	33,467	12,325	63.2
마 산	91	65	28.6	3,038	1,242	59.1
진 주	88	91	3.4	1,129	776	31.3
춘 천	60	41	31.7	1,908	1,429	25.1
제주도	72	32	55.6	1,833	603	67.1

1/ 아래의 산업에 관한 참고자료를 취급함. 금속, 기계도구, 화학, 공익사업(가스, 전기, 수도), 요업 및 토석, 방직, 제재 및 목제품, 인쇄 및 제본, 토목건축 및 기타 공업. 전매사업장 및 관영사업장은 이를 제외함.

2/ 전 시간(일일 8시간) 작업하는 노무자만을 취급함.

3/ 390개 휴업 사업장을 제외함

4/ 총수입 27,566,000원에 해당하는 기술자 8,990명을 제외함

5/ 이 지역에 대한 충분한 신고서를 접수치 못함

자료 : 제주도의회(2000), <제주 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 p.408.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표 6>은 공장의 휴업원인에 관한 표이다. 제주도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원료부족'에 의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지역, 산업 및 휴업 원인별 휴업 사업장의 분포표

(1944년 6월 및 1946년 11월)

지역별	전 공업						금속공업			
	총 휴업 공장수	아래 조건의 불비로 인한 휴업					총 휴업 공장수	아래 조건의 불비로 인한 휴업		
		노무력	자본	원료	기계	기타 이유		원료	기계	기타 이유
한국 총계	390	1	20	272	36	61	9	6	2	1
서울시	51	-	1	30	5	15	2	1	1	-
인천	1	-	-	-	1	-	-	-	-	-
개성	8	-	-	6	1	1	-	-	-	-
청주	1	-	-	1	-	-	-	-	-	-
대전	3	-	-	3	-	-	-	-	-	-
군산	9	-	-	9	-	-	-	-	-	-
전주	7	-	-	2	2	3	-	-	-	-
목포	4	-	-	4	-	-	-	-	-	-
광주	1	-	-	-	-	1	-	-	-	-
대구	8	-	-	6	2	-	-	-	-	-
부산	40	-	2	31	5	2	3	2	1	-
마산	22	-	-	15	2	5	2	1	-	1
진주	11	-	-	8	3	-	-	-	-	-
춘천	7	-	-	5	1	1	-	-	-	-
제주도	13	-	-	13	-	-	-	-	-	-

자료: 상계서, p.450.

4) 상업

해방 직후 도내 대부분의 점포는 상품 없는 점포가 많았고 과실, 과자 등을 위주로 하는 미국 및 일본상품을 약간 진열하는 형편이었다. 한 점포 당 매일 평균 매상은 1천원 내외였다. 반면 정기시장에서는 보통 점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상품, 특히 일본제 상품들이 범람(주로 밀수상품)하였는데, 이러한 암시장의 활동 증가로 일반 상거래가 쇠퇴하고 암시장이 왕성하였다. (도내 상품

대부분은 밀무역 상품이었고 정상점포의 상인은 그 취급을 꺼려하여 대부분 암상인에 의한 암시장 거래가 활발하였던 것 같다.)

이외에 관영무역은 그 규모가 해방 전에 비하여 월등히 줄어들었다. 거래 품목은 주로 농산물, 해산물 위주의 비가공 원료형태였다.

<표 7> 수출 현황

(단위 : 원) (1947년)

구분	세 부 품 목	실 적 액	비율
농산물	大麥,裸麥,小麥,조,麥酒麥,蕎麥,라이麥,大豆,小豆,채소종자,밀감,그린피스용완두,생고구마,절간고구마,고구마전분,당면,헤아리벤티,면화,제충국,	3,495,000	38%
축산물	소,말,돼지,羊毛,蜂蜜,牛皮,계란,우돈육 통조림	918,802	9%
임산물	黃芽,靑芽,五倍子,고려근,楮實,矢竹,죽세공 양태,陳皮,얼네빗,厚朴,椎茸,厚朴葉	1,016,500	11%
수산물	통조림(鯖,雲丹 등),해삼,明鮑,加里鹽,해초류,貝鉆,沃度,鹽藏魚類,活線魚類	3,918,945	42%
합 계		341,047,200	100%

자료: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地-9면을 참고하여 재구성

5) 물가와 임금

① 물가 폭등

해방과 함께 한국경제는 일본경제로부터 분리되고 연이어 남북경제로 분리되어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다. 산업생산 특히 공업생산이 격감되었기 때문에 공산물의 가격상승이 더욱 두드러졌다. 생산의 급격한 감소와 소비증대로 인해 물자부족 사태가 일어남과 함께 일제말기부터 누적적으로 악화되어 온 인플레이는 물가폭등을 가져와 경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1943년 조선의 圓貨유통량은 10억 원 이었으나 전쟁 말기에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해방 직후 9월까지 8배 이상 증가했다. 공급부족과 물가폭등이 민생 안정을 위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협하면서 사회 및 정치의 혼란도 격화되었다. 그리고 재정, 금융, 무역도 해방의 충격으로 극심한 혼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산업상의 불균형을 가속화시켰다. 더욱이 미군정은 물론 한국정부도 특히 재정과 금융의 불균형을 통화증발이라는 비상수단에 의지해 해소하려 했다 그 결과, 통화증발도 함께 진행되어 산업생산의 점진적인 회복에도 불구하고 통화 증발과 인플레이션⁸⁾의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통화증발의 원인은 미군정하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대상금 형태의 대출 남발에 있었다. 또한 식량확보를 위한 거액 대출로 통화증발과 함께 일제말기까지 억압되었던 물가가 광란에 가깝게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물가상승은 남북한의 분단을 비롯하여 통제경제의 해체, 그에 따른 반동적 투기활동 증가, 당국의 통화증발, 생산기구의 정지, 파괴, 해외동포의 급격한 귀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상품들이 1947년 6월을 기준으로 폭등하고 있으며 특히 1948년 5월 이후 식량, 생필품들의 가격이 광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1946-1948년간 제주도 주요 생활 필수품의 價格昂騰趨勢

단위 : ■ (斗는 大斗)

연도	1946	1947							1948						
		3월 (A)	6월 (B)	7월 (C)	9월 (D)	10월 (E)	11월 (F)	12월 (G)	1월 (H)	2월 (I)	3월 (J)	4월 (K)	5월 (L)	6월 (M)	7월 (N)
백미	1斗	200	875	1,000	1,100	1,050	950	1,050	1,500	1,500	1,450	1,800	1,800	1,800	2,000
조	1斗	80	600	800	800	800	750	870	1,150		850	1,050			
大豆	1斗										825	950			
소맥	1斗												750	750	800

8) 해방 직후 남한 인플레이션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① 남북한 분단과 통제경제 해체 ② 지배당국의 통화남발, 식량수집 자금의 방출 ③ 생산기구의 일시적 정지, 정채 ④ 해외동포의 급속한 귀환으로 인한 수요급증, 실업난 등이다. 즉 통화팽창, 수요급증, 공급감소 등이 결합된 복합적 요인에 의한 악성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여진다.

耽羅文化 21號

연도		1946	1947						1948						
품목	단위	3월 (A)	6월 (B)	7월 (C)	9월 (D)	10월 (E)	11월 (F)	12월 (G)	1월 (H)	2월 (I)	3월 (J)	4월 (K)	5월 (L)	6월 (M)	7월 (N)
豚肉	1斤	20								140	140	180	200	200	230
牛肉	1斤	20	55	60	60		70	80	100	140	140	200	250	250	250
계란	1個	3	6	5	5		5	5	10		15	15	25	20	22
燻寸	대1箱	40	100	100											
洋燭	6本入	45													
薪木	1坪									4,000	3,500	4,500	9,000	8,000	8,000
세탁비누	1箇	20				30	25	25	25	90	250	150	150	150	200
화장비누	1箇									250	60	130		130	150
木炭	1噸						115	500	420	700	800	450	1,400	1,200	1,200
고무신	1족	90 (여)		140 (여)	200 (여)	250 (남)	220 (남)	380 (남)	480 (남)	600 (남)	450 (남)	550 (남)			
密酒	1升				250	250	250	300	200	450	150	350			
면서츠	1좌						350	420	450						
사탕	1斤				250	250	250	300	200	450	150	350			
광목	1碼	30 (尺)	65 (尺)	40 (尺)	86 (尺)		153	153	204	476	476	350	350	425	450
靴	1足			700	900										
大麥	1斗					850	820	900	1,200	950	825	950	1,160	750	800
양말	1足						75	80	120	250	250	180	180	350	350

자료: 조선식산은행조사부, 『식산조사월보』 1946, 1947, 1948. 신상준(2000), 전계서, p.469에서 재인용

* A는 제주도 도승격 이전이고 나머지는 도승격 후임.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② 임금

1946년 11월 제주도 노무자들의 1일 평균 취업시간은 8.09시간(전국평균 7.72시간에 비해 높다), 8시간 기준 1일 평균 임금은 57.60원(전국평균 79.60원에 비해 낮다)이다. 1일 평균 취업 시간은 남자 8.15시간, 여자 7.09시간이다. 성별 임금을 보면 남자가 1일 평균 60.86원 여자가 30.58원으로 2.0:1(전국 남자 90.89원 여자가 52.44로 1.7:1)비율이다.

〈표 9〉는 1947년 9월 기준 임금표인데,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

대목, 석수 갱부가 월등 높고 그 다음은 기술 보유공, 즉 선반, 용접, 목도인부 등이 높은 편이다. 잡역인부가 운전수, 전기공, 활판공에 비해 높은 것은 그 당시 산업구조가 불안정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9〉 제주지역 노동임금 조사표 (단위 : 명) (1947년 9월)

선반공	용접공	구조공	원동기 기관수	汽罐화부	汽機공	전기공	발효공
180	175	130	150	79	77	65	53
장유 양조공	통조림 제조공	土瓦제 조공	製材 I.	小木 I.	양모가공 여공	활판 식자공	활판 인쇄공
150	143	200	190	195	49	125	100
운전수	운전 조수	車掌	人木	石手	목도인부	잡역인부	패구 제조남공
83	53	21	450	475	300	175	54
패구 제조여공	시험공	압축공	폼푸공	분쇄공	증류공	갱부	蒸煮 I.
50	71	65	53	53	74	400	72

자료: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地-9면, 재구성

〈표 10〉는 제주도 전체, 전 산업 소득구성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산업별로는 농업이 단연 높고, 지역별로는 제주읍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까지도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절대적으로 농업우위였으며 여타 산업은 매우 취약했다고 보아진다.

<표 10> 제주도 소득 구성 (단위 : 원) (1947년 8월 현재)

지역	농업	수산	봉급	蔗業	自由業	기타	계
제주	19,319,184	8,049,660	2,012,415	2,817,381	3,219,864	4,829,796	40,248,300
애월	8,175,367	3,174,900	338,118	1,111,215	1,269,960	1,904,940	15,974,500
翰井*	14,250,930	5,588,600	558,860	1,956,010	2,235,440	3,353,160	27,943,000
대정	5,820,813	2,282,672	228,268	798,935	913,069	1,369,603	11,413,360
안덕	2,364,105	950,277	69,533	324,485	370,840	556,260	4,635,500
중문	2,814,000	1,131,290	82,770	386,260	441,440	662,160	5,517,920
서귀	4,337,450	1,821,729	260,247	520,494	693,992	1,040,988	8,674,900
남원	3,458,750	1,418,088	103,762	553,400	553,400	830,100	6,917,500
표선	2,252,475	1,102,275	95,850	383,400	383,400	575,100	4,792,500
성산	3,494,436	1,899,150	151,932	531,762	607,728	911,592	7,596,600
구좌	5,074,704	2,484,491	158,584	740,061	845,784	1,268,676	10,572,300
조천	4,842,739	2,472,888	154,556	772,777	824,296	1,236,444	10,303,700
추자	987,480	960,050	54,860	192,010	219,440	329,160	2,743,000
계	77,192,433	33,336,070	4,269,755	11,088,190	12,578,653	18,867,979	157,333,080

자료: 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地-14면, 재구성

* 翰井面이라는 지명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 제주도 전체면 중 한경면이 빠져있어 수정면이 한경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수정면은 농업부분의 소득이 높고 전체적으로 제주읍 다음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Ⅲ. '4·3'과 제주도 경제

1. '4·3'의 경제적 원인

아직 '4·3'의 경제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만큼 확실히 정리된 근거는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4·3'과 관련된 직·간접적 원인들 중에서 주로, 민·관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사실들에 주목하려 한다. 민·관의 감정이 악화되게 된 사건들이 '4·3' 발생과 전개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 하에 이들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민과 관이 갈등을 야기시켰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① 식량부족과 물자부족, 그에 따른 배급에 있어 관에 의한 여러 가지 부조리 행태 ②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곡물수집으로 농민들의 생산환경을 저해했으며 각종 반발을 야기시킨 것 ③ 마지막으로 밀무역 과정에서의 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과 사리도모, 착취 등을 들 수 있다.

1) 식량부족

미군정기에 제주도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었던 것은 ① 절대생산량 부족 ② 미곡 수집상의 모순 ③ 모리배의 매점매석 행위 ④ 식량배급 및 受配상의 부정 행위 ⑤ 기타, 소비 증가에 그 원인이 있었다.⁹⁾

해방 직후 농업생산은 식민지 시대보다도 감소하여 1946년 식량 생산량은 1935-1939년 기간 평균생산량의 71%에 불과했다. 식량생산 감소 원인은 화학 비료 생산이 격감되면서 발생한 비료부족에 큰 원인이 있었다. 비료생산은 해방 직전에 558,134톤이었다가 1946년에는 3,603톤으로 식민지 시대의 0.6%로 급격히 저하되었다. 비료부족 이외에도 1935-1939년 평균의 71%로 줄어든 경작지 면적의 감소도 생산감소의 원인이 되었다. 해방 후의 해외귀환동포 및 월남민으로 인구가 증가했는데 1946년 9월 1일 현재 276,000 인 (전년대비 25.5% 증가), 1948년 1월 1일 현재 61,000 인 (1944년 5월과 비교하여 27.7% 증가)이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일제가 대륙침략과 일본의 방위를 피해 강제로 이주시킨 징병자와 노무자,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시장에 포섭되어 갔던

9) 신상준, 전계서, pp. 461-467.

도일 노동자, 해녀들이 해방과 함께 귀국하면서 인구 격증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인구증가는 여타 물자부족과 함께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10) 둘째, 당시 미곡이나 하곡의 수집은 우선 생산 예상고를 설정해 놓고 그 예상 생산고 중에서 일정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출11) 하도록 했는데, 미군정 당국이 생산예상고의 예측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수집 할당량을 결정하고 이를 수집했기 때문에 농민의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모리배의 매점매점 행위(출곡 시 엮가로 매입해서 저장해 두었다가 곡가가 폭등하면 이를 매도하여 폭리 취함. 관료와 결탁해서 정부로부터 양곡을 엮가로 취득해서 이를 암시장에 매도하여 폭리를 취함)로 인해 곡가가 폭등하였다. 다음은 미군정 당국의 책정한 공정가격과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큰 데 원인이 있다. 1948년 1월 미군정청 중앙물가행정처의 조사가는 미곡 733원, 조선식산은행 조사가는 1,500원 공정가격은 140원이었다.

또한 식민지시대 강제공출제로 먹을 양식조차 모자랐던 농민들이 해방 후 공출제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농민의 자가 소비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들 중 하나이다. (주 7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식량부족 사태가 생겨나자 제주도는 1946년 25,000석을 반입하였다. 이중 미곡은 24,901석, 소맥 14,982석, 소맥분 5,354석, 대맥 4,684석, 옥수수 159석, 전분 23석이다.

〈표 11〉 보면 1946년 11월에서 1947년 10월 사이 반입량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미군정기 제주도 외국 양곡수입 실적 (단위 : M噸)

시 기		小麥	小麥粉	옥수수	大麥	燕麥	豌豆	大豆	大豆粉	米穀	砂糖	합 계
1946년5월 ~10월	남 한	105,664	8,200	15,655								129,519
	제주도	1,000	-	-								1,000

10) 유광호, 『미군정의 경제정책』, "서장", pp. 8-13.

11) 제주도에서는 이를 '성출'이라고 하였다.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시 기		小麥	小麥粉	옥수수	大麥	燕麥	豌豆	大豆	大豆粉	米穀	砂糖	합 계
1946년 11월 ~ 1947년 10월	남 한	133,946	79,066	15,120	139,110	910	1,100	1,400	8,100	39,362		423,114
	제주도	1,065	863	160	930	-	-	-	41	-		3,059
1947년 11월 ~ 1948년 1월	남 한	70,192	1,861	-	12,432					3,139	500	88,124
	제주도	347	-	-	55					-	-	402

자료: 조선은행 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I-249면.

2) 식량배급

미군정은 당초 하루 3합씩 배급을 하였는데, 이는 일제 말 배급량의 절반 수준이었다. 제주도에서는 2합5작이 기본이었는데 도 당국에서 확약받은 물량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고 이조차 제때 배급하지 않아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식량배급 상황을 『제주신보』 기사를 통해 보면,

- 불과 4~5일 간에 일약 배가의 폭등을 본 쌀값은 그렇지 않아도 생활면에서 생지옥의 도탄에 신음하는 일반 소비대중에 심각한 타격을 줘 기아를 앞에 한 인민의 비참한 아우성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자)
- 1947년 2월 14일부터 각 배급소에서 1일 1인당 2합5勺 (백미 1합 5勺, 소맥 5勺, 소맥분 5勺)식 28일분의 식량배급이 실시되었다.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자)
- 1947년 3월 27일부터 3월 상반기분(15일분) 1인당 1일분 백미 1승, 소맥 5勺, 소맥분 1합식, 도합 백미 1승 5합, 소맥 7하 5勺, 소맥분 1승 5합을 시내 각 배급소에서 배급하였다.(제주신보 1947년 3월 28일자)
- 1947년 5월 17일부터 5월 분 식량배급을 종전과 같이 배급할 계획이다. (제주신보 1947년 5월 14일자)
- 1947년 5월 17일부터 1947년 7월분 식량 배급을 종전과 같이 배급할 계획이다 (제주신보 1947년 7월 12일자)

- 제주도 농무과에서는 1947년 7월분 식량배급을 중순경에 실시할 것이고, 식량배급을 2-3개월간 중단한다는 풍설을 부인했다.(제주신보 1947년 7월 12일자)
- 1947년 7월 20일 경에 북제주군 산업과에서는 7월분 배급을 7월 20일경에 백미 1합 4勺, 잡곡 6勺, 합계 1인당 2합식 1개월분을 배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주신보 1947년 7월16일자)
- 중앙청 지시에 따라 백미 1합, 잡곡 1합, 합계 2합식을 배급할 계획이다. (제주신보 1948년 8월 20일자)
- 1947년 10월 20일부터 10월분 배급을 1일 1인당 백미 8勺, 잡곡(대맥, 맥분) 1합 2勺식을 배급할 예정이다.(제주신보 1947년 10월 28일자)
- 제주읍에서는 1947년 9월 15일 부과한 호별세를 납부치 않은 자는 식량배급은 물론이고 기타 일체의 배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제주신보 1947년 10월 22일자)
- 1947년 12월분을 미곡 1합 5勺, 잡곡 1합, 합계 2합 5勺을 배급할 예정이었으나 반출도인 전라남도로 부터의 반입이 여의치 않아 미곡 1습 잡곡 1합 5勺을 상하분기로 나누어 배급하되, 상반기분은 미곡반입 상황에 따라 배급량을 결정하되 2합5勺은 확보할 계획이다.(제주신보 1948년 12월 18일자)

이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확보가 행정(미군정, 지역 관리)의 최대현안이였다고 보아진다.

도제 실시 후 초대 지사였던 박경훈 지사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주정 공장에 비축했던 절간고구마 3,000가마니를 풀어 농가식량난 해결에 나서기도 하였는데 역부족이었다.

식량배급 전달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다. 즉 하곡수집계획을 미숙하게 처리하거나 지역별로 불평등한 식량배급 체계를 야기시켰다.¹²⁾ 또한 식량을 배급받을 도민들에게 배급표를 주지 않고 면장실에 모든 식량표를 보관하여 이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는 등 부패된 배급체계를 보여준 경우도 있었다.

12) 박경훈 초대지사 후임으로 도지사에 부임한 유해진지사는 나중에 그의 행정전반에 대해 미군정청으로 부터 추궁을 받았는데 그 중 식량배급과 관련된 것을 살펴보면, 식량배급량의 차이, 면장실에 보관된 식량배급표 문제, 수집한 곡물의 부적절한 저장, 전남에서 들어온 미곡 3만석의 부적절한 저장 및 처리, 곡물저장 창고 보수 및 관리 소홀 등이 있었다.(주한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문서, 넬슨특별감찰보고서, 1947.11.12-1948.2.28)

3) 생필품 보급

미군정 3년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4억 634만여달러의 원조를 공여 받았다. 이 원조액은 미 해외청상위원회로부터 2,452만 달러, 가리오아(GARIOA)로 통칭되는 점령지역 행정구제계획에 의한 자금의 원조가 나머지이다.

미군정의 원조는 1945년도 494만여 달러 1947년 1억 7,537만 여 달러 1948년도 1억 7,959달러이다. 제공된 물자는 식량, 피복, 직물 등 생필품이 전체의 49.2%였고 다음으로 농업용품 17.7% 그 밖에 석유, 철도, 해운, 자동차, 통신용기계, 의약품, 건축재료 등이 있었다.

이를 기초로 제주도 상공과에서는 1947년 1월 10일 현재 각읍·면을 통하여 면포 17,220마, 인건 3,180마, 성냥 竝型 14,440개, 본건반건 4,000마, 미곡수집용 면포 62,760마 군화 698족 단화 986족 성냥竝型 24,000개 성냥德用 7,808개 화장비누 1,800개를 일반에게 배급하였다. 또 1947년 3월 금융조합연합회를 통하여 일반에게 양말 2,522족 면포류 70,425마 운동화 6,466족 고무신 22,981족을 배급 또 광목 4만6천마를 일반가정에 배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민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으며 배급과정에 있어서 관의 횡포 문제가 심하였다.

4) 곡물수집

미군정은 1945년 10월 5일 미곡통제를 백지화하고 미곡 자유시장을 허가하였으나 곧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이하여 1947년에는 반통제 정책의 성격을 띤 公正가격과 자유가격, 이중양곡체계를 실시하고 이어 9월에는 미곡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미군정이 미곡수집 적기인 11,12월을 미곡 자유시장정책 하에서 보낸 후 1946년 1월 25일에 공포한 미곡수집령의¹³⁾ 내용에 따르면 농민이나 지주는 현미나 백미 0.45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적당한 한 가격'으로 정부에 매도하도록 하였다.¹⁴⁾ 수집방법은 일제 시대 이래의 기존 행정조직을 그대로

13) 1946년 1월 25일 '미곡수집령'으로 시작된 식량공출은 이후 매년 그 준칙이 되는 법령·규칙 등의 변경은 있었지만 쌀, 보리, 잡곡을 대상으로 하는 곡물 공출제는 실질적으로 1950년 5월의 '양곡관리법'의 제정까지 계속되었다.

14) 정영일, 『미군정의 시대의 경제정책』, "미군정의 농업정책", pp. 64-91

이용하여 군수, 부윤, 읍, 면장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일제시대 공출경험과 행정조직망을 이용한 수집은 실시단계에서부터 혼란이 심했고 농가의 협력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1945년 산 미곡수집의 실패를 만회하고 식량공출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미군정은 식량관리기구부터 정비했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9일 '생활필수품영단'의 임무를 개정하고 식량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중앙식량행정처'를 신설했다. 그리고 1946년 5월 28일부로 공포된 법령 제90호 '경제통제'에 따라 경제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통제로 복귀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중앙경제위원회¹⁵⁾ 산하의 중앙식량행정처가 식량정책과 관련되는 행정기관과 연락하여 식량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경제통제법 하에서의 식량공출은 중앙경제위원회 산하의 중앙식량행정처가 제정한 식량규칙¹⁶⁾에 따라 그 실무기관인 생활필수품영단에서 식량의 매입과 배급업무를 대행하는 체제였다.

1946년 산 하곡에 대한 공출은 중앙식량행정처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공포한 식량규칙 제1호 '하곡수집'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 하곡에 대한 강제공출은 일제하에서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곡은 소작인 몫이 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였다. 게다가 하곡은 농민의 주된 식량이었기 때문에 하곡공출은 미곡공출보다 더 큰 농민 저항을 야기 시켰다.

1946년 산 미곡의 수집은 식량규칙 제2호 (8월 12일 공포)와 제3호 (8월 28일 공포)에 의해 이루어 졌다. 식량규칙 제2호의 특징은 공출농가를 자작농과 소작농으로 분리한 점, 특히 소작농에 의한 소작료의 전량공출에 힘썼다는 점이다. 농민들의 공출에 대한 저항은 격렬했다.¹⁷⁾ 따라서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 경찰, 우익단체, 미군까지도 동원되었다.¹⁸⁾ 이처럼 미군정의 식량공출 정

15) 중앙경제위원회는 가격의 안정 및 소비자물품의 한정배급과 공급부족물품의 수집 또는 통제를 할 수 있는 한편 가격, 생산, 배급, 노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16) 중앙식량행정처의 업무는 식량정책 및 계획에 관한 방법을 수립하고 그러한 방법의 시행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이 중앙식량행정처에서 식량규칙을 공포함으로써 이후의 식량공출은 이 규칙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지방에는 각 도에 식량과가 있어서 중앙식량행정처의 직접지시를 받아 식량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다.

17) 조선연감에 따르면 "공출을 완수할 수 없는 농민이 한꺼번에 검거되는 경우도 있어서 공출하지 않으면 소작권을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방에서는 미곡수집인의 발포로 농민이 죽사했던 경우도 있었다."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8년판, p. 215.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책은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농민들의 저항은 최소한의 식량 확보와 식량관리기구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최저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식량 수요마저도 충족시킬 수 없는 데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미군정 기간 내내 지속되었고 1946년의 10월 봉기¹⁹⁾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제주도의 1946년 추곡수매 할당량은 5,000석이었으나 수집량은 1947년 1월 말까지 0.1%에 그쳤으며 1947년 하곡 수매량도 할당량 17,000석 중 18.8%인 3,189석에 그쳤다. 이는 전국수매율 97.9%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1947년도 하곡수확예상량은 약 8만 5천석 정도인데 이중 실제로는 할당량의 59.5%인 10,100석 밖에 수집되지 않았다. 이는 하곡(맥작)이 대폭풍우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의 경찰발포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고 남조선남로당이 양곡수집 거부운동을 전개한데도 원인이 있다. 이처럼 양곡 수집에 따른 무리로 민원이 발생하고, 수집과정에서 관리와의 마찰²⁰⁾이 생겨났다.

1948년 '4·3'이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악화되고 하곡수확량이 급감

18) 미군정 방첩대가 검열한 서신에 따르면 "내가 사는 지역은 양곡수집 때문에 대단한 혼란에 빠져있다. 올해 우리가 생산한 미곡의 총량은 78가마니였다. 우리가 미곡사업에 갖다 바쳐야 할 미곡량은 73가마니가 된다. 미곡수집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자들은 이제 미군들까지 동원하기에 이르렀다. 촌락마다 40-50명의 병사들이 와서 수집사업을 돕고 있는데 만약 농민이 자신에게 할당된 수집량을 채우지 않으면 군인들이 농민을 체크해서 데려간다." 일월서각, 『미군정 정보 보고서』 제12권, p.120.

19) 이 봉기는 '대구폭동', '10.1 폭동', '영남폭동', '10. 1 소요', '영남소요', '추수봉기', '10월항쟁', '10월 인민항쟁'으로 불리운다. 10월 1일 대구에서 파업에 대한 군경테러단의 폭행에 항의하는 군중집회에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경찰과 시민간의 대규모 유혈충돌이 발생하여 곧바로 대규모 민중봉기로 확산되었다. 이때 농민들은 경찰서를 습격·방화하고 신한공사의 양곡수집 창고를 점거, 곡식을 지방주민들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결국 미군정과 농촌사회의 갈등이 표면화, 전면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미곡공출, 식량 및 생활난이 미군정경찰 폭력과 함께 봉기를 촉발시킨 직접적 近因이었다. 김호기(1999),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2』,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시민사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45년 10월 5일 미곡통제를 백지화하고 미곡의 자유시장을 허가하였으나 곧 식량 부족 사태를 맞이하여 1947년에는 반통제 정책의 성격을 띤 公正가격과 자유가격, 이중양곡체제를 실시하고 이어 9월에는 미곡법을 공포하였다. pp. 19-22.

20) 대표적인 사건으로 1947년 안덕면 동광리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지수(2000), "4·3과 중산간 마을의 거주공간 변모",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참고할 것.

하자 제주비상경비사령관 崔天은 당시 제주지구의 토벌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 육군대령과 1948년 6월 27일 담화한 후 제주도의 하곡수집을 철폐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강압적인 곡물수집정책은 제주도 농업의 생산력 기반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생산비 이하의 저 가격 수준으로 곡물 수집을 강제함으로써 그 결과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나아가 영농의욕을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5) 밀무역

미군정 당국은 대외무역을 철저히 미군정 통제 아래 두고자 하였다. 미군정기의 무역은 한마디로 관영무역 내지 국영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악성 인플레이션에 의한 광란물가 억제책이었고 긴급물자를 수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내의 물자수급 균형을 위한 민간무역 통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군정 당국은 무역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무역업 자체를 처음부터 허가제로 운영하였다. 즉 모든 물자의 해외교류는 물론, 각종 재산의 반입과 반출, 해외여행 육·해·공의 각종 운반수단 그리고 이들을 위해 이용되는 항구나 공항 등을 모두 미군정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었다. 심지어 쌀과 같은 주곡은 수출 금지 품목으로 묶고 그것을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수입의 경우 총수입의 80~90%가 국가에 의한 국영무역이었고 민간에 의한 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던 한국경제, 특히 제주도 경제는 급작스런 '단절'로 인해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사무역, 밀무역이 성행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전체의 생산활동이 마비되고 생활필수품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려는 긴급대책으로 해외로부터 물자 도입이 시도되는데, 이러한 실정에서 일본과의 '무허가 사무역' 성행하게 되었다. 즉 국내 물자가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자 소형 발동선을 타고 일본 왕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당시 기사를 보면,

- 일본으로부터 밀수물자가 대량유입돼 남선일대에서 모리배가 속속 제주도로 운집, 화폐 팽창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제주신보 1948년 2월 2일자)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당시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했던 상품들을 보면, 피복류, 문방구, 화장품, 아르마이트 제품, 의약품 (특히 마약), 당구스텔션, 고무신 등으로 대부분 고가이고 부피가 적은 것 (밀수에 용의한 것)이 많았다.

이 당시 밀무역은 해방 후 출가인들이 귀향 시 재산 반입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밀무역 과정을 살펴보면, 해방 후 일시적으로 무궁화 지폐가 통용되어 그 지폐가 밀수입금의 대가로 도내는 물론 목포, 부산 등지 연안에서 在日 荷主 명의로 하여 예금증서 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수한 증서를 하주에 교부하고 상품과 교환해 왔다. 이로 인해 제주읍내 주택은 서울보다 高價이며, 농경지도 밭은 평당 최고 5백원, 논은 천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상품 도착 당시 상품은 本島人은 전혀 알 도리가 없고 중간 부로커를 兼營하는 일부 여관주 만이 안다. 도매상 거래는 항시 부로커를 경유해야 가능하고 부로커는 買主와 賣主 양쪽에서 이중으로 수수료 챙겼다. 일본 상품 반입자와 도매상인은 보통 受人, 受信人이 합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위험 분산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항은 일본을 내왕하는 밀수업자 중에 여자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검거 시 인정에 호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일본에서의 밀수입은 소형 선박 한척에 시가 약 700만원의 물자를 적재한다. 1946년 말 현재 일본에 억류된 선박이 300척에 달하였는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음은 최근 발간된 제주도의회(2000), 『제주 4·3 자료집-미군정 보고서』에 수록된 밀무역에 관한 사항들이다.

“제6사단 보고에 따르면 1월 2일 -17일 사이에 미 구축함 1척이 한국해역에서 불법으로 수하물을 선적한 소형 선박 5척을 억류했다. 억류된 물건은 쌀, 면화, 가솔린, 비단 등이 대부분이다. 이 선박들은 제주도나 목포로 가기 위한 것이다.” (상계서, p.103.)

우편검열 1947.1.28. - 1947.1.29(No 443)

“일본으로 한번 밀수해 성공만 하면 그 이익은 아주 엄청납니다. 억류되어 배와 짐이 물 수 되더라도 손해보다는 이익이 큼니다.”(편지날자, 1946년 12월 31일)

우편검열 1947.1.2 - 1947.1.3 (no 321)

“이것은 해안경비대의 몇몇 대원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부산연안을 순시하는 해

안경비대의 몇몇 부정직한 대원들은 상품을 신고 일본에서 돌아오는 모리배의 밀수선을 탐지하면, 자주 물건을 매점하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밀수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보통 상당량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그들은 밀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눈감아 버린다.”

우편검열 1945.12.16-1945.12.17 (no 99)

쌀 밀수조직에 경창간부도 포함돼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밀무역은 당시 사회·경제적 구조하에서 생겨난 왜곡된 무역구조의 하나로 위협에 비해 이익이 많아 이에 가담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도는 일본과 목포나 부산, 서울 등지를 연결하는 중간지로 환영받았던 것 같다.

미군정청은 밀수선이 늘어나자 밀수선 단속에 주력하였다. 그 당시 단속에 나선 기관들은 경찰, 세관, 해안경비대, 항무서, 물가감찰서 나중에는 서청 등이었다. 심지어 일제시대 순사들 출신들을 미군정 경찰로 둔갑시켜 밀수품 단속에 나선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이나 관리가 개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즉 그 들 가운데는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밀수선을 적발할 경우, 뒷거래로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 경우도 만연했다. 이러한 행각으로 미군정 관리, 경찰, 나중에는 서청 등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는데, 이러한 상황과 '4·3' 발생 원인을 연계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면,

“(미군정이나 내가 파악한 제주 4·3 사건의) 직접 도화선이 된 원인이 하나는 제주도 민에게 과거 일제시대부터 생업이 되다시피 했던 일본-육지간의 중간무역에 대한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위협과 침해였다. ... 이들 선박들은 일본 각지를 운항하면서 값싼 상품들을 가지고 와서 제주도 육지의 항구를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해방 당시 제일 귀한동포들의 수송과 재산운송에 이 선박들이 단단히 한 몫을 하였다. 상품구입을 위해 일본에 말항을 하려는 상인들 또는 상품을 거래하려는 상인들이 제주도에 몰려와서 경기는 갈수록 좋아지고 생활은 풍부해 졌다. 그런데 이 무역상품을 세관 아닌 경찰과 서북청년단원들이 몰래 압수하고는 몰래 상인들에게 매도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급작히 제주도 각 항에 출입하는 무역선이 줄어들고 그 기항지가 부산·여수 목포항으로 변경되고 제주도에서는 무역이 지하로 잠입하기 시작한다.”²¹⁾

21) 조남현(1993), <제주 4·3 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pp. 262-264.

해방 전후의 제주도 경제와 '4·3'

이 기록을 통해 보면 밀무역에 대해 경찰이나 서북청년단들이 이익을 갈취할 목적으로 개입하였고 그로 인해 민원과 불만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원인이 제주 '4·3'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보아진다.

이와 함께 도민 일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악화시켰던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복사환 사건'²²⁾이다. 이 사건은 당시 제주사회에 횡행했던 모리배, 관리, 미군정청이 연루된 비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경우이다.

2. '4·3' 전개와 제주도 경제

'4·3'이 확대되면서 제주도 경제는 완전마비 상태였다. 제주도 전역에 내려진 계엄령으로 바다에도 나가지 못하고 밭에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기본적인 생산활동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농업을 비롯한 수산업, 상업 전반이 침체했고 밀무역이 성행하였다. 다음은 조선식산은행 조사부, 「식산조사월보」에 기록된 '4·3' 당시 경제개황을 소개한 것이다.²³⁾

1948년 6월 20일 현재

농업 : 맥작은 순조로히 성육하고 있으나 비료 난으로 평년작 정도이다.

공업 : 제주주정공사에서는 원료수집 자금 미 조달과 석탄 반입두절로 조업 중지 상태에 있다.

상업 : 물가는 폭등하며 일본으로부터 약간의 밀수입선이 도착하였으나 상품의 출회는 전무하다.

1948년 9월 현재

농업 : 맥작은 평년작이 확실하더니 당지 발생 중대사건(제주 4·3)으로 제초 시비 관

22) 1947년 1월 11일 일본오사카의 법환리 출신 건친회에서 고향에 보내는 전기자재와 주민학생들에게 줄 주단, 광목, 고무신, 학용품을 싣고 오던 복사환이 밀수선을 단속중이던 해안경비대에 나포된 사건이다. 이 배는 목포항으로 회항하다 잠시 산지항에 잠시 기항하였는데 그 사이 일부모리배가 화주를 회유해 배에 있던 물자를 빼돌린 것이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모리배와 결탁한 미군정청과 경찰간부들이 이들을 공공연히 비호하고 화주를 협박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미군정청과 경찰간부들에 대한 도민의 불신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4·3이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 사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23) 조선식산은행조사부(1948,1949), 전계서, 제3권 2호, 제3권 3호, 제3권 4호, 제4권 1호, 제4권 2호, 신상준(2000), 전계서, p. 449.에서 재인용

리는 물론 수확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금융: 법령 제182호에 의한 구지폐 교환고는 68,212,900원이었다.

1948년 12월 현재

농업: 맥작은 교통두절, 민심불안 등으로 발육관리 방임되며 매우 우려된다. 감저는 발육상태가 양호하다.

수산업: 출어금지로 기선어업은 육지부로 이동하고 소규모어업만 출어함에 어획고는 근소하다.

상업: 화포 등의 해산물의 매매는 육지부로부터 상인거래와 더불어 약간 활발하여지고 있으나 일반 상거래는 한산하다.

금융: 절간 감저 매수자금, 경비대 자금지불 등으로 예금은 점감되고 있다.

1949년 3월 15일 현재

농업: 맥파종은 계엄령 실시,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순조로히 파종되지 못하는 모양

수산업: 해상 출어 금지로 인하여 어획 전무

상업: 계엄령 실시, 교통두절로 지방자금의 출회는 전무하며 특히 생필품 중 목탄, 신목 가격 폭등하여 평당 15,000원이며, 송탄 6관입 1표에 1,500원 정도임.

금융: 예금 173,311,000원 (12월말), 대출 17,910,000원(12월 말)

1949년 6월 현재

농업: 계엄령 실시, 교통두절로 인하여 2월 중에 도내 일부는 맥 파종 하고 있으나 발육상태는 불량함.

수산업: 출어를 못하고 있음

상업: 지방물자의 출회 전무

금융: 당점 예금대출잔고 예금 171,331,000원, 대출 18,386,000원

이처럼 '4·3'의 진행으로 농업은 파종, 비료, 수확 등 전 과정의 관리가 불가능하였고 수산업과 상업 역시 계엄령과 교통두절로 침체된 상태에 있었다. 이에 반해 물자 부족으로 물가는 폭등하여 일반인들의 가계 생활은 전시상황에 준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V. 맺음말 - 요약

이 글은 해방 전후의 경제상황과 '4·3'과의 관련성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특히 '4·3'이 경제적 배경과 원인, '4·3' 전개로 인한 경제변동 상황을 살펴 보았다. 또한 '4·3'이 경제적 원인을 밝히는데 있어 주로, 민·관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사건들에 주목하였다. 민·관의 감정을 악화시킨 대표적 사건으로 ① 식량부족과 물자부족, 그에 따른 배급에 있어 관에 의한 여러 가지 부조리 행태 ②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곡물수집, 그로 인한 농민들의 저항과 생산환경 저해 ③ 밀무역 과정에서의 관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私利도모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미군정기 제주도는 생산량 절대 부족, 미곡 수집상의 모순, 모리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타 소비 증가 등에 의하여 식량과 각종 생필품 부족현상이 심각하였다. 미군정 당국은 이러한 식량 및 생필품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 및 물자 배급을 실시하였는데, 배급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불평등한 식량배급 체계를 야기시켰다. 또한 식량을 배급받을 도민들에게 배급표를 주지 않고 면장실에 모든 식량표를 보관하여 이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는 등, 부패된 배급체계를 보여준 경우도 있었다. 생필품 보급도 도민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으며, 그 배급과정에 있어서 관의 횡포가 심하였다.

둘째, 미군정은 초기 한국의 농업생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곡물자유판매를 실시하여 곡물의 수급문제를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주독점과 곡물에 대한 투기, 매점, 과소비가 수요급증 등이 발생해 심각한 식량부족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군정은 1946년 2월, 자유시장제를 취소하고 일제시대의 곡물수집제도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정의 곡물수집제도는 제주도 농촌사회에 과다한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도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으며 '4·3'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미군정 당국은 모든 물자의 해외교류는 물론, 각종 재산의 반입과 반출, 해외여행 육·해·공의 각종 운반수단 그리고 이들을 위해 이용되는 항구나 공항을 미군정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었다. 심지어 쌀과 같은 주곡도 수출금지품목으로 묶고 그것을 어기면 강력한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전

체의 생산활동이 마비되고 생활필수품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타개하려는 긴급대책으로 해외로부터 물자 도입이 시도되는데 이러한 실정 하에서 일본과의 '무허가 私무역'이 성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제주도 경제는 이러한 밀무역에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제주도 경제가 밀무역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규모나 이윤이 일정 비율 이상 커지자 이에 대한 관의 개입이 심화되었다. 즉 미군정 당국, 경찰, 서청 등 각종 관의 권력기구들을 밀무역에 직·간접으로 개입하여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도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건들로 인하여 제주도민들과 당국 즉 미군정, 서청, 지역관리 등과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사건들로 인해 증폭되어진 제주도민과 통치세력들과의 갈등이 '4·3'이 발생과 전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상준(2000), 『제주도 4·3사건』 상권, 한국복지행정연구소.
 유광호 외(1992), 『미군정시대의 경제정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민일보 4·3 취재반(1994), 『4·3은 말한다』, 전예원.
 제주도의회(2000), 『제주 4·3 자료집 미군정 보고서』.
 제주신보, 1947, 1948년 판.
 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1948년』.
 진관훈(1999), "일제하 제주도 농촌의 변동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림대 아시아문제연구소(1999),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2』.